

‘소울의 여왕’ 故아레사 프랭클린 의상 경매

세상을 떠난 ‘소울의 여왕’ 아레사 프랭클린의 무대의상이 29일 공개됐다.

뉴욕 줄리안 경매는 무대의상과 모자, 신발을 비롯해 아레사 프랭클린이 생전에 입었던 의상 60점을 ‘아이콘 & 아이돌’ 세일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마틴 놀란 줄리안 경매 수석디렉터는 “아레사의 의상은 어딜 가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또한 아레사는 참석하는 행사마다 유명인사와 함께 했다. 경매 품목 중에는 아레사가 1997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했을 때 입었던 아름다운 가운도 있다.” 고 설명했다.

경매 물품은 지난 2011년 경매에서 컬렉션을 구매한 익명의 투자자가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매는 이달 9일-10일 뉴욕 하드락 카페에서 현장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아레사 프랭클린은 지난 8월16일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그래미어워즈에서 18번 수상하고,



전 세계적으로 7,500만 장 이상의 음반을 판매한 소울의 여왕이다. 빌보드 TOP10에 오른 노래만 17곡이고, 20곡이 R&B 차트 정상에 오르는 등 각종 기록을 가지고 있다.

지난 8월 30일에 열린 장례식은 미국 전역에 생중계되기도 했다. 장례식은 헌정 공연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아리아나 그란데, 조니 길, 로니 맥니어, 디디 브릿지워터 등 유명 가수들이 무대에 올라 고인을 추모했다.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미드로 제작된다



신경숙 작가의 장편 소설 ‘엄마를 부탁해’가 미국에서 드라마로 만들어진다.

신 작가의 출판 에이전트인 KL매니지먼트는 지난 30일 신 작가가 이달 영미권 콘텐츠 제작사 ‘블루자 픽처스’와 미국 드라마 판권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한국 문학 작품을 원작으로 하는 미국 드라마 판권 수출의 첫 사례다. 아직 구체적인 제작, 방영 일이나 방송사가 정해지지 않았다.

엄마를 부탁해는 엄마의 실종 사건을 계기로 아들, 딸, 아빠 등이 저마다 엄마의 인생을 추적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다. 엄마를 소재로 한 기존 소설들이 모성애에 집중한 것과 달리 사회적인 공간 안에서 엄마의 존재를 조명한다. 지난 2008년 10월 처음 출간된 이후 현재까지 현재까지 245쇄를 찍고 212만부가 판매됐으며 36개국에서 번역 출간됐다. 미국에서는 2011년 번역 출간됐으며 맨아시아 문학상을 수상하고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다.

줄리 앤 로빈슨 블루자 픽처스 프로듀서 및 디렉터는 “엄마를 잃은 죄책감으로 곤경에 처한 한 가족의 경험을 아름답고 진솔하게 그린 소설”이라면서 “하루 빨리 스크린으로 옮기고 싶다” 고 밝혔다.

블랙핑크, 내년 첫 월드투어

걸그룹 블랙핑크가 내년, 데뷔 후 첫 월드투어에 나선다.

1일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 BLACKPINK 2019 WORLD TOUR(IN YOUR AREA)는 내년 1월 12일부터 13일까지 방콕, 1월 20일 자카르타, 1월 26일 홍콩, 2월 2일 마닐라, 2월 15일 싱가포르, 2월 23일 쿠알라룸푸르, 3월 3일 타이베이 등 총 7개 도시 8회 공연을 진행한다.

이 중, 멤버 리사의 고향인 방콕에서는 총 2회 공연을 펼친다. 공개된 포스터에는 ‘AND MORE’ 라고 적혀 있어 블랙핑크가 앞으로 아시아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공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블랙핑크의 월드투어는 K-팝 걸그룹 최초로 라이브 밴드와 함께 진행된다.

이에 앞서 블랙핑크는 이달 10일과 11일 서울 KSPO DOME(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데뷔 이래 ‘첫 서울 단독 콘서트’인 BLACKPINK 2018 TOUR(IN YOUR AREA) SEOUL X BC CARD를 열고 한국 팬들과 먼저 만난다.

한편 블랙핑크는 최근 미국 최대 음반사 유니버설 뮤직 그룹의 레이블 인터스코프와 손잡으며 본격적인 미국 진출을 앞두고 있다.

1236호 숫자퍼즐 정답

1	4	7	2	5	8	3	6	9
9	2	3	1	4	6	5	7	8
5	6	8	3	7	9	1	2	4
2	1	5	9	3	7	4	8	6
3	7	4	8	6	2	9	1	5
8	9	6	4	1	5	7	3	2
4	3	2	5	8	1	6	9	7
6	5	9	7	2	3	8	4	1
7	8	1	6	9	4	2	5	3

종교 무관
주7일 예약상담

자식을 둔 후에 발복(發福)하는 팔자

☎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오래 전에 아는 사람이 소개했다고 하면서 찾아온 40대 남성과 상담한 내용이다. 팔자가 먼저 그분의 사주를 보면서 건넨 이야기는 “원래 타고난 사주팔자가 재물복이 박한 팔자라고 할 수 있으나 그래도 운(運)을 잘 만나 세속적인 활동은 할 수 있는 운로(運路)가 됩니다. 그러나 어떤 직장을 가더라도 오랜 세월동안 한 직장과 인연하기 힘들고 직장을 전전하는 팔자가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 분이 하는 말씀이 “원장님 말씀대로 한 직장에서 1년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팔자가 물어본 것은 “타고난 팔자에 처덕이 박한 팔자가 되는데 결혼은 했습니까?”라고 물어보니 아직 총각이라는 것이다. 이어서 팔자가 건넨

이야기는 “타고난 팔자가 처덕은 박해도 자식은 둘 수 있는 팔자가 되는데 지금이라도 장가를 가서 자식을 둔다면 한 직장과 오랜 세월 인연할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의 팔자는 자식이 주인공의 역할을 하는 사주가 되므로 자식을 둔 후에 발복(發福)하는 팔자가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 분이 묻는 말이 “원장님 제가 언제나 장가를 갈 수 있겠습니까?”라고 묻는다. 그래서 팔자가 해준 말은 “내년에 말띠 인연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본인이 눈높이를 낮추고 웬만하면 그 처자와 인연을 맺는다면 선생님은 황재하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이다. 시간이 흐른 후에 그 분이 다시 팔자의 사무실에 찾아와서 하는 말이 진짜 말띠 인연을

만나서 사귀게 되었다며 궁합을 봐달라는 것이다. 팔자가 두 사람의 궁합을 보니 아주 잘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합격선은 넘은 것이다. 그래서 팔자가 그 처자와 꼭 결혼해서 하루라도 빨리 자식을 두라고 조언해 주니까 방긋 웃으면서 기뻐하는 것이다.

★ 사주명리 · 풍수 · 수맥감정 전문 ★

★ 사주명리(四柱命理) 수강생 모집 ★

평생사주 총운 | 직업, 사업, 재물 | 궁합, 애정 | 상호, 이름 작명 | 풍수지리 출장 감정 | 수맥 탐사 전문

예약 필수 714.534.4645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

정교한 사주해석 전문 청해역학학술원